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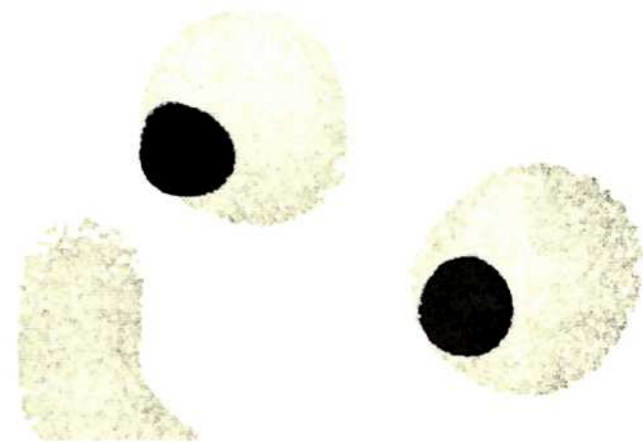


학생회 활력 프로젝트

2005 청소년 활력 프로젝트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회센터





학생회 활력 프로젝트

2005 청소년 활력 프로젝트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회센터



[학생회란 무엇인가 ?]



1. 학생회란 무엇인가?

- (1) 학생회의 정의
- (2) 학생회의 역할
- (3) 학생회 활동이 가지는 의의
- (4) 학생회 간부의 자세

2. 학생회 활동 소개

- (1) 월별 학생회 활동
- (2) 학생회 일상 활동

3. 현 학생회의 실태와 문제점

4. 학생회의 발전 방향 및 대안 모색

[축제]



1. 축제 준비에 들어가며

- (1) 축제란
- (2) 축제의 구성
- (3) 축제 준비 순서
- (4) 기획안 작성의 예시

2. 공연

- (1) 공연, 이렇게 준비하자
 - 가. 공연의 주제 및 캐치(제목) 설정하기
 - 나. 공연 준비 계획 세우기
 - 다. 출연자 섭외
 - 라. 사회자에 대하여
 - 마. 공연 순서 및 콘티 작성
 - 바. 리허설과 공연 당일 준비
 - 사. 그 외 준비 및 당일 공연 진행시 신경써야 할 것들
- (2) 제안 : 새로운 공연 문화를 위하여
 - 가. 성공하는 혹은 그렇지 못한 공연에는 이유가 있다.
 - 나. 제안 주제와 내용이 있는 공연 만들기
 - 다. 올해 공연은 이렇게 해보자.
 - 라. 정리_학생들을 위한 공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3. 이벤트

- (1) 축제 이벤트란
- (2) 성공적인 이벤트 진행을 위한 제안
 - 가. 사전준비
 - 나. 유의사항
 - 다. 이런 이벤트는 하지말자
- (3) 이벤트 소개
 - 가. 교문
 - 나. 학생회본부석
 - 다. 강당
 - 라. 참여마당
- (4) 이벤트물품 구입정보

4. 대동제

- (1) 대동(人同)제란 무엇인가?
 - 가. 대동제의 정의
 - 나. 대동제 판의 구성
 - 다. 대동제 하면 도움되는 것!
- (2) 대동제의 필수요소
 - 가. 사회자
 - 나. 진행요원
 - 다. 음향시설을 갖춘 운동장 / 강당
 - 라. 각종 대동제 물품 준비 방법
 - 마. 최종리허설
- (3) 대동제 프로그램
- (4) 대동제 돌발 상황 이렇게 대처 해 보자
- (5) 대동제 정보 모음

5. 홍보

- (1) 축제에서의 홍보의 역할과 중요성
- (2) 현재 중고등학교의 축제 홍보
 - 가. 교내 홍보의 사례
 - 나. 다른 학교 홍보의 사례
- (3) 홍보가 살아야 축제가 산다
 - 가. 홍보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변해야 할 것
 - 나. 축제 홍보는 이렇게 하자
- (4) 새롭게 제안하는 축제홍보
 - 가.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한 교내 홍보
 - 나. 인기만빵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다른 학교 홍보
- (5) 축제 홍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들
 - 가. 홍보 인쇄물 제작
 - 나. 홍보 영상 제작법
 - 다. 홍보 물품 제작

● 희망 학생회센터 소개



학생회란
무엇인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운크렸던 지난 날 가슴 아픈 일들이
이태로 주저 않는 꿈들
포기하지는 말자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슬피하지는 말자고
저 바람처럼 가볍히 날자고
화를 내지도 돌아서지도 못해
살이 깎아놓은 조각처럼
하루하루를 그저 채워하고 있는 나를 깨워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날아와 하늘로 자유롭게
이제 날자 자! 가는 거야
이제부터 너 시작이야



(1) 학생회의 정의

학생회 간부들에게 학생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외비우스의 띠', '진공청소기' 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생들의 대표기구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다',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는 자치기구다'
등의 표현처럼 경험을 비추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학생회의 정의를 내려볼 순 없을까.

학생회란,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써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자치조직이다.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첫 번째,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이다. 사회가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학생회를 학생들의 손으로 뽑지 않았었다. 학생회의 역사에서 살펴봤듯이, 그 때는 대표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개념조차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민주화되고 진정한 학생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생겨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바꾸려고 했던 것이 직선제였다. 임명제나 간선제로 선출되는 대표는 학생들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교사학부모라고 할 때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학생대표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학생회 활동이 막히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의 한 주체로서 본다면 이와 같은 학생회 활동은 더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간부들도 스스로 대표기구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가로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대표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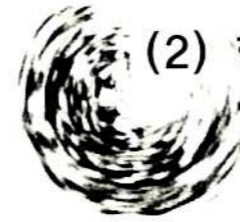




두 번째, 학생회는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없다. 어떤 학생회 간부들은 개별 학교가 필요에 의해 학생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회 활동은 교육정책에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활동이다. 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은 크게 교과, 생활지도, 특별활동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특별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자치활동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기본적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법의 현재 수준은 학생회 활동을 두도록 명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회 활동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학생회는 학생자치조직이다. 교육정책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모든 학생회의 회칙을 보면 목적에는 '자치활동을 통하여' 또는 '자치능력의 배양으로'와 같은 표현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학생회 간부들의 경험 속에서도 학생회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의 자치활동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생회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회는 십중팔구 학우들에게 외면 받거나 원망을 듣게 된다. 진정한 자치조직으로써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펴 나갈 때만이 학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현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전면 보장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 또한 해결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자치조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의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의에 연상되는 것은 분명 학생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들로 구성된 학생회 운영위원회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학생회의 일부분이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도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 대표들이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은 대의원이라 불리며,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을 포함하는 명칭이다. 그러니 학생회 활동이라 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와 대의원의 활동을 함께 이야기해야 함이 옳다. 운영위원회든 대의원회든 어떤 한 부분만 잘 된다고 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학생회의 역할

학생회가 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회의 역할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A학교 학생회가 B학교 학생회보다 훨씬 풍부한 활동을 하며 학우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A학교 학생회는 B학교 학생회보다 학생회의 역할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생회가 있다면 그 학생회는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정해진 학생회 사업이 없다 할지라도 학생회의 역할을 잘 알고, 학우들을 위해 활동할 마음만 있다면 그에 맞게 창조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①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학우들의 손에 의해 선출되고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학생회들이 학교행사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더 힘쓸 부분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일반학우들이 지지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회가 학교 연간 행사만을 진행하거나 매달리게 될 때는 그런 바램들을 충족 시킬 수 없게 된다. 비록 우리의 활동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도 학생회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실현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우들의 신뢰가 더 쌓이게 됨은 당연하다. 물론 학생회가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수렴한 의견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한다. 듣기만 하고 바뀌는 것이 없다면 불신만이 쌓여가게 되기 때문이다. 학우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실현, 이를 알리는 활동을 잘 해야 한다.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는 의견 수렴과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많은 학생회가 건의함을 설치하고, 인터넷 카페 운영을 하기도 한다. 몇몇 학교는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학우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급식이나 용의복장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그런데 각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학우들은 의견을 적극 표현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또, 학급회나 대의원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우들의 의견수렴 통로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학생회에서는 창조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이끌어낸다. 풍문어고에서 했던 '화진이'가 그 대표적 예이다.

(화진이 : '화장실 안에서의 진솔한 이야기'의 준말로서, 보통 화장실 낙서를 많이 하는데, 풍문어고는 이런 지저분한 것을 해결하고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낙서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학교 화장실 각 칸마다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종지와 펜을 붙여 놓았다. 실제로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학생회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②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많이 제한되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한 당한다. 교칙이 대표적인데, 시대가 바뀔때도 이전 시대의 교칙들이 계속 바뀌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권리의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제한당하는 학생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의견수렴과 실현을 통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제한당하고 있는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두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용의복장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개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리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③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생활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생활이 존재한다. 학우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학생회의 역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잘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생일에 e-mail을 보내주는 학생회도 있다. 화장실에 휴지를 놓는 것이나 매점 메뉴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학생회도 있다. 언제나 민감하게 학우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④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이해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학생회가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또,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 서로에 대한 배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 등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든 스스로 만들어갈 때 영향이 큰 것이다. 학생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어떤 교육보다도 효과적인 것이다. 그걸 이끌어 내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다.

캠페인이나 선거는 모든 학생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또, 학생들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칫 사회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게 될 수가 있다. 하나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마치 대학에 가서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학생들도 어른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회참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회다.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농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나 우리의 농촌을 알게 되고, 남을 도움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사회참여활동은 비단 특정한 문제에 대한 참여의 의미뿐 아니라 역사, 시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 잘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교에서는 4.19, 5.18과 같은 역사기념 행사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정의를 위해 나섰던 사례로는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이나 사립학교 비리척결 운동 등이 있었다. 또, 2002년 있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때 학생회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들을 적극 홍보하고 함께 참여했던 경우도 있다.





(3) 학생회 활동이 가지는 의의

우리는 보통 학생회 활동이 가지는 의의를 생각할 때 학생회 간부가 느끼는 개인적인 보람이나 성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회 간부들의 성장도 학생회 활동의 의의 중의 하나이지만 더 큰 의의는 전체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알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은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의의 역시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학생회 활동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의 주체가 된다.

교육의 3주체를 학생교사학부모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주체는 아니었다.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되어 왔고, 정당한 권리 주장은 아직도 미약한 목소리다. 그러나 학생회의 지위가 높아지고,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의 대표기구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이 그간의 억눌려왔던 것을 표출하며 반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고 학교와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가 되는 것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다.



■ 학생인권과 복지가 향상된다.

학생인권이나 복지는 학생회의 역할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이다. 학생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한다면 그에 따른 성과는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역할을 잘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두발문제가 그러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두가지 사안은 학생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발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화 되었을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 규정을 재개정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잘 알고 움직였던 학생회와 그렇지 못한 학생회의 학교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우신고와 같이 남학생이 머리를 어깨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과격적 개정안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학생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함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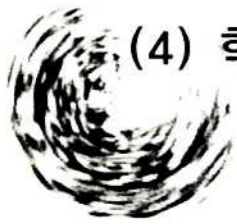
급식 질서 지키기, 금연 캠페인, 교복 잘입기 캠페인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서로가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의 몫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이에 각종 질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임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민주시민의식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학생회가 단지 선도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학생 스스로가 살맛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최근 학생들이 내신등급제나 수행평가등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이슈로 부각되었다. 학교라는 공간이 수학문제를 잘 풀고 영어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으로만 충족된다면, 그것은 학원이 지 학교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살맛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학생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역사부터 의의까지 학생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학생회 활동의 변화는 없다. 모르는 상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지이지만,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것이 된다. '실천만이 작은 돌맹이 하나라도 움직인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이제 남은 것은 학생회 간부들,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이런 학생회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4) 학생회 간부의 자세

■ 학생회 간부가 지녀야 할 5가지 덕목

학생회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유형의 학생회 간부들이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로서 현 학생회의 잘못 된 간부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한 간부에게 '넌 저 유형이야'라고 한 가지 모습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글을 읽어가면서 내가 만약 아래 사례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덕목이 부족해서 그런지 생각해보고 변화해보도록 해 보자.

① 대표성

학생회는 학생들의 입장과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이다. 학생회가 없으면 학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학생들의 대표 기구가 없어진다. 이는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없다면 학생회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학생회는 항상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생각하자. 학생회는 자기만족을 위한 곳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해 일한다는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도록 하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학생회라는 명예"

학.생.회. 이름만 들어도 멋있다.

학생회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위한 활동인 것만 같고 왠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몇 백 명의 학생들 중에 열명쯤만 그것도 면접을 통해서 선출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학생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솔직해보자. 나는 학생회를 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생활기록부에 "학생회 임원으로써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리더십 능력이 뛰어남"이란 한줄.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관계" "예쁨 받는 학생"의 모습

졸업식 날 받게 될 "공로상과 메달"

대학입시에 도움 될 "+2 +1점의 가산점"

주위 친구들로부터 받게 될 왠지 모를 "부러움과 환상의 눈길"

이런 것들을 기대하진 않았는가?

학교 학생회는 소극적, 외부활동은 적극적인 "외적내소(外積內消)형"

학교에선 학생회의 권위가 땅으로 내려가 있고 학생들은 학생회의 존재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힘들게 준비해 치러낸 사업들을 가지고 학생회가 쓸데없는 것만 한다고 학생들은 불만이 많다. 내부단합이 어려워 회의한번 하기가 어렵다. 만날 때마다 다투고 싸운다. 선생님들은 학생회 활동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잘하라고 구박만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회가 바로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적나라한 현 학생회의 보편적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회가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생회 활동(사업, 문제해결, 고민)에는 무관심, 소극적, 좌절 한 채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외부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 간부도 있다. 학우들이 뽑아준 학생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보다는 다른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것도 일종의 배신(?) 아닐까.

나는야, 학생과 선생님을 잇는 중간다리 일뿐!

학생대표인지 선생님 대변인지 정신 못 차리는 간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몰라 중간에 걸터있는 간부.

교사전달사항과 교사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간부.

학생회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대부분의 학생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다리의 매개하는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 인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회가 있으니 문제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② 공동체성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가치 하나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이다. 내가 잘 나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학생회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회장이나 선배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의와 모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모아 가보면 더욱 힘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학생들 전체를 대변하는 학생회 간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을 만나든 일을 추진하든 그것은 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내가 짱! 내말이 곧 법! "독불장군형"

회의를 할 때면 유난히 발언을 많이 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어떨 때는 어떠한 논리나 근거 없이 무조건 내말이 옳다고 우기기도 한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언성 높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학생회사업을 잘 해야 한다는 소중한 마음으로 출발한 외로운 독불장군들은 우리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잘하면 내 덕, 못하는 내 탓 “떠밀기형”

스승의 날 사업을 제안했다. 새로운 사업제안에 다들 동의했고 행사를 잘하기 위해 모두가 열심 히 노력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성과 있게 끝났다. 이것은 누구 덕인가? 한 간부가 학생의 날 사업은 야외 콘서트로 하자고 했다. 모두들 잘 될까 싶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확산에 찬 간부의 모습을 보고 동의했다. 이번 역시 모두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하지만 추운날씨에 야외 콘서트는 무리였다. 반응도 없었고 그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는 많은 욕을 먹어야 했다. 이것은 누구 탓인가? 내가 제시하고 주장한 의견이 통과되고 그것이 잘 되면 너무나 뿌듯하다. 그리고 마음 한 쪽에선 “내가 낸 의견이야”라고 소리치고 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 덕분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다. 이것이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땐 혼자서 욕을 먹을 것인가?

③ 책임성

학생회를 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책임성이다. 학생들을 대변하는 사명을 띤 만큼 가장 우선으로 학생회 활동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간부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학생회 간부 집단의 힘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한사람 한사람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또 하나 학생들과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감도 함께 갖자. 공약을 지키는 않는 다던지 학생회 차원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않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쉽게 외면당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약속은 꼭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자!

입만 등등~ “이빨까기형”

‘우리학생회의 문제점은 어찌구 저찌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찌구 저찌구’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어찌구 저찌구’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 이거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찌구 저찌구’

말만 들으면 한 견해하고, 한 역할하고, 한 인물 하는 훌륭한 간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무안한 믿음이 생겨난다. 하지만 실천력 없이 매번 거창한 말로만 만리장성 쌓는 간부라면? 오직 말보다 실천하는 간부만이 진정한 학생회 간부라 할 수 있다.

④ 적극성 및 자발성

학생회 간부들은 특히 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경우가 많다. 학생회 활동, 개인적인 약속, 공부 등등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학생회 활동이 내 삶에서 중심이 되지 않고 활동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국민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장관이 정부 일보다 개인적 약속을 더 우선시한다는 걸 보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는 학생회 간부가 된 이상 장관이 되어서 일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학생회 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해보자. 학생회 간부가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학생회가 하는 것이 모야?’, ‘너희들끼리만 재미있지?’ 등의 우리 학생회 활동의 어려움을 알리고 하지 않고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너희가 학생회 활동 한번 해봐!!”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이자.



나는야 연예인 “나 약속 있는데”

기양 : 오늘 방과 후에 학생회실에서 회의 한다

니양 : 어? 나 약속 있는데? 못가~

기양 :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축제 준비 기획회의를 하도록 하자

니양 : 나 토요일 날 학원 보충 가야해

학생회 일만 하려고 하면 부모님 생신이다. 정말 친한 친구와 중요한 약속이다. 학원보충이다. 회의를 한번 할라치면 이런일들이 종종 있다. 사정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사람 한사람 빠지다 보면 모여있는 간부들이 힘이 빠지기 일수 어떤 간부들은 이야기 한다. ‘나도 지금 아주 중요한 약속 있는데 미루고 왔는데...’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도 뒤편을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의 무관심을 타하는 간부

“학생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아무도 참여 해 주지 않아요. 건의함을 설치해도 어떤 건의도 하지 않고 우리 좋으라고 학생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관심이 없는지” 학생들의 무관심에 의욕을 점점 잃어가는 간부들이 있다. 혹은 조그만 실수에 질책하는 학생들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는 간부들의 모습이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탈한게 있을까. 그러나 학생들의 모습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학생회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의 학생회 활동이 학우들에게 신뢰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다. 학생들을 타하기에 앞서 학생회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되돌아 보고 학우들에게 적극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회 간부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헌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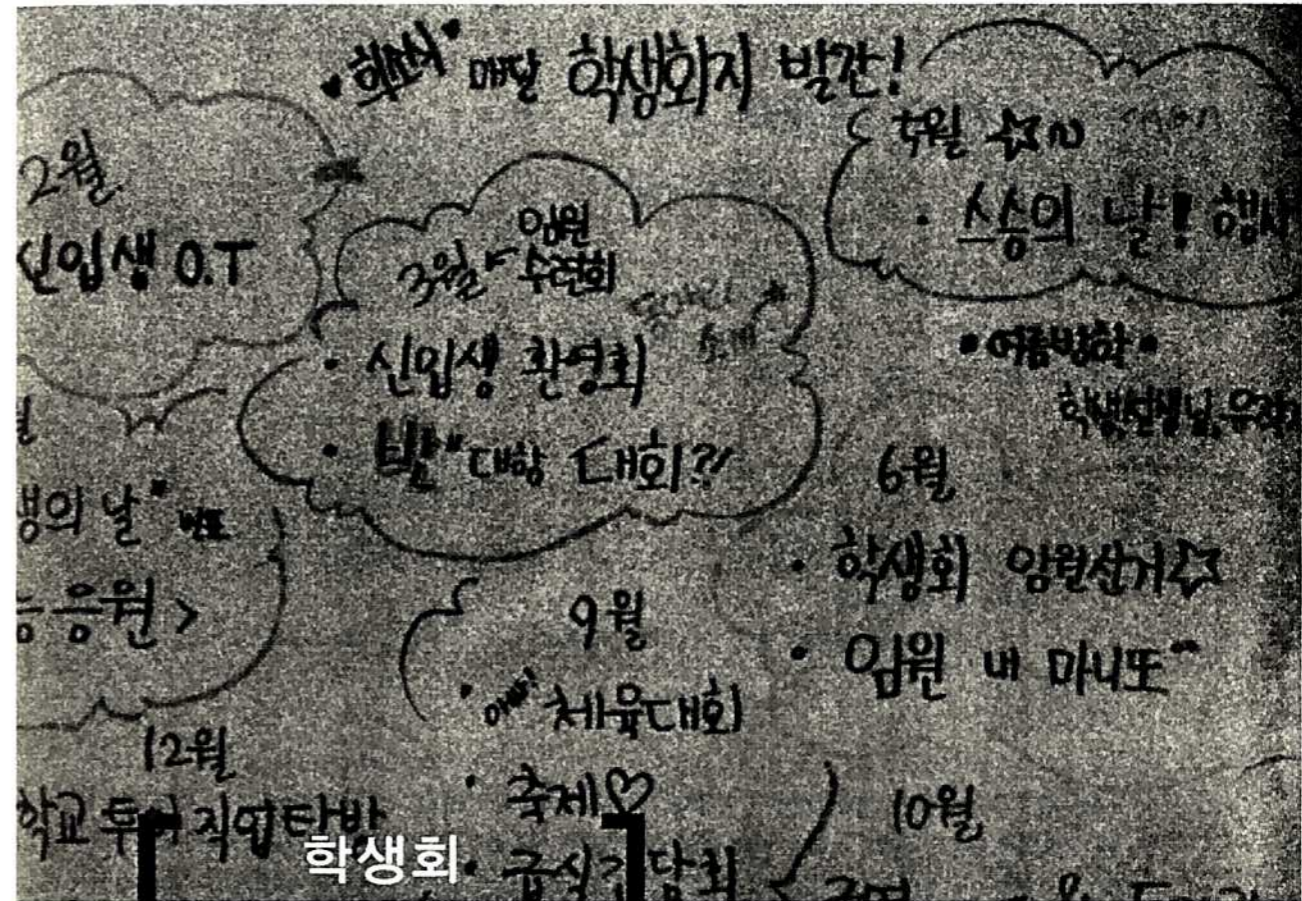
학생회 간부들에게 헌신성은 생명이다. 학생들은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 발로 뛰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지 말자. 학생들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학생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티 안 나고 주목받지 못하는 허드렛일이 왜 기쁜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어보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이 뛰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마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다.”

학생회의 절대권력 “학생회장”

어떤 여고 축제과정에서 참 신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회장에게 할일이 없다’ 유심히 간부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구심은 분명 회장에게 있었다. 간부들이 회장에게 와서 의논하고 회장에게 와서 논의한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신기한건 이렇게 바쁜 시기에 회장은 할일이 없었다. 이런 의문점들은 한 장면을 목격한 후 스스로 해명할 수 있었다. 회장과 한명의 간부가 있었다. 계속 말하지만 회장은 할일이 없었고 간부는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 급하게 시시각각 돌아가는 축제라 처리해야 할 일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물품을 더 사가지고 와야 다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이었다.



그 자리에는 회장과 무지 바쁜 한명의 간부가 있었다. 간부 완 "나는 지금 하던 것 빨리하고 또 다른 일 오늘까지 마저야 하니까 내가 문방구가서 물품 사오면 되겠다. 예산도 너한테 있잖아" 회장 완 "나는 회장이잖아. 내가 자리를 지켜야지 나가면 안 돼. 내가 갔다 오던가 다른 애들 지켜 준줄게" 회장이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까? 회장이 해야 할일과 부장들이 해야 할일이 다를까? 대부분의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일을 맡아놓고 자신은 정작 할일이 없는 학생회장도 있다. 학생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맡아놓고 책임지지 않는 회장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애초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던 다짐은 어디간것일까. 학생들은 지켜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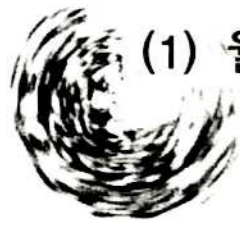
활동 소개

달리기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쏟아지는 땀살 속에 입이 바짝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수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쁜 숨을 몰라내며 억울하겠죠
 일등 아닌 보통들에게만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달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





(1) 월별 학생회 활동

학생회가 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학생회 1년 나기 활동을 월별로 정리해 보았다. "어 이젠 우리학교에서도 하는건데!!" 또는 "이런 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텐데, 각 행사의 의의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첨부하였으므로 학생회 간부들이 이를 많이 참고하여 자신의 학교에서도 실천해보고나 응용할 수 있길 바라고, 각자 학교에 특성에 맞게 기획하여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3월

•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는 말 그대로 신입생을 환영하는 행사이다. 아직 학교에 뭐가 있고 어떤 동아리가 있고 학생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런 것들을 신입생의 눈에 맞게 연극, 풍트, 춤으로 표현하는 행사이다.

사례1) 동명여고

동명여고에서는 학생회 홍보 영상과 함께 학생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댄스반 중창반, 방송반, 기타반 등의 동아리가 자칫하면 지겨울 수 있는 신입생 환영회의 열기를 높여주었다. 또 작년 축제 때 1등을 하였던 팀이 나와서 직접 공연을 하기도 했다. 중간 중간 졸업생, 선생님들도 함께 나와서 신입생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였다.

- * 교장선생님 인사말
- * 인사말 (학생회장: 최은희)
- * 학생회 홍보 비디오 + 학생회 소개
- * 스포츠 댄스반 (5,6th) ... cha cha cha·Jive·
- * 중창반 (엘리에셀 19th) ... 여유 있게 견제 친구
- * 솔로 (2002년 동명가요제 대상) ... 박효신&박화요비 - 전설속의 사랑 (Duet, 성한솔, 진주희)

<2부>

- * 졸업생 축하 메시지
- * 선생님 축하 메시지
- * 방송반 (26th 방송반)
- * 기타반 (19th) ... 조이락 - 지금인가요 ... 체리필터 - 내게로와
- * LOVE 선생님 LOVE ...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 * 교가 제창

- **임기시작 발대식** 새로운 기의 임기의 출범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기념식이다. 예전의 발대식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고사를 지내고 모든 학생이 총학생회를 인식하는 큰 행사였으나, 현재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발대식이 당일 교문 앞에서 새로운 기의 출범을 알리고 학생회의 존재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사례1) 풍문여고 13기 학생회

* 행사내용

- 풍문인 등교시간 : 교문인사(학생회 이름을 학생들에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반 인사 : 각반에 들어가 인사, 학생들의 학생회 존재인식(학생회 임원단 소개 및 학생회 홍보, 어떤 학생회가 되겠다는 것을 알림)
- 고사 : 학교의 반대로 전교생은 모이지 못하고 학생회 인만 고사를 지냄(14기 때는 학생들과 함께 고사지냄)
- 교무 회의 때 선생님들에게 인사 / 출범대자보 게시 / 아침방송



사례2) 한성여고 한비추미 학생회

* 사업 취지 :

- 처음 학생회를 시작할 때, 학생회 간부들에게 학생회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기 위해
- 학생들에게 한비추미라는 학생회가 있다는 사실과 간부들의 얼굴을 알리기 위하여
- 학생회 대의원과 운영위원회와의 분리를 시키기 위한 첫 작업!!

* 사업 방법 :

- 학생회 고유의 이름 짓기 :
학생회 사업에 앞서 학생회의 포부와 다짐을 나타낼 있는 직선4기 한성여고 총학생회 이름을 짓기로 하였다. : 한비추미-뜻:한성을 크게 비추겠다.
- 학생회 소개하는 대자보 만들기 :
학생회 대의원과 운영위원회를 구분하여 전체 학생회 명단을 등교 길에 제시
- 교문인사 :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회 부장과 차장 그리고 회장 부회장이 양쪽 대열로 일렬로 선 다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했다.
인사구호 : 안녕하세요, 한비추미입니다.
일수 : 2일 동안 등교시간에 함

■ 4월

- **간부수련회** 대의원들과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함께 학교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보통 1박2일 일정이거나 하루 종일 하는 행사이니 만큼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하면 좋다. 또한 간부들끼리의 단합력과 협동심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식목일 나무심기 캠페인** 환경파괴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식목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단순히 나무를 심기를 위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전을 열어보자.
- **4.19행사** 우리 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정의를 외치던 날이 있었다. 그 날이 바로 "이승만 정권 퇴진하라"고 외쳤던 4.19이다. 사회에 정의로운 일이 필요할 때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었다. 지금 획일화된 입시 구조 하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선배들의 활동을 본받고 4.19정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학생회 차원에서 공연이나 영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로서 준비해보자.



사례1) 풍문여고 학생회

4.19역사 바로 알리기 및 다시 보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

* 행사내용

- 자료전시(배경, 전개과정, 의의, 현재의 의의, 4.19관련 각종 자료, 시, 그림, 사진전시)
- 아침방송 회장의 4.19알림 간단한 의의와 묵념
- 학급 대자보 : 각 반마다 4.19를 서면으로 통해 알림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위기 조성)

■ 5월

- **스승의 날** 1년 간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날이다. 예전에는 촌지가 유행했지만 요즘은 진심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를 쌓는 계기로 사용되고 있다. 1년에 한번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제지간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로 사용하자.

사례1) 중앙 고등학교

* 스승의 날 행사

- 반별행사 : 롤링 페이퍼(ex:A4 한 장 정도에 쓰고 코팅), 반별파티(담임선생님과 대화, 선생님 둘러싸고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기)
- 등교시간 행사 : 꽃, 차, 바닥에 글씨 써서 길 만들기, 교문 또는 언덕길에 풍선 붙이기, 문자 메시지, 등교시간 스승의 은혜 노래 틀기
- 협조 요청 씨클: RCY, 관악반, 교장선생님, 방송반

- **5.18 기념행사** 과거 광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극에 대항하였던 시민의 정신에 대해 알리자. 광주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이후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리자. 그 중 특히 앞장섰던 고등학생의 활동과 오늘의 의미를 찾아보자.

사례1) 풍문여고

학생들에게 역사바로알기 및 현재모습 자각

* 행사내용

- 역사적 자료전시(배경, 전개과정, 의의, 현재의미, 다시 보는 5.18등의 내용) / 아침방송



■ 6월

- **선거** 선거는 학교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학생회는 선관위로서 그 재 역할을 해내야 한다. 선거가 재미가 없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낮은 투표율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표성을 잃기가 쉽다. 후보들 간의 토론회나 대담, 그리고 미리 예상 투표율을 조사해서 발표한다든지 선거를 단순히 후보들만 열심히 유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축제의 장으로서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 **체육대회** 전교생이 모두 운동장에 뛰어나와 서로의 기량과 협동심을 발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의 전유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다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응원을 반 대상으로 해서 서로 협동심을 기르는 좋다. 체육대회의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체육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응원단이나 치어리더 팀이 있다면 중간 중간마다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댄스반, 힙합반 등등 중간 중간 흥을 돋을 수 있는 팀들이 나와 공연하는 것도 좋다. 체육대회에 상을 정하기 말고 해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해보자.
- **6.15 남북공동성명 기념 통일 사업** 학생들에게 남과 북의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바로 알기, 통일에 대한 관심 불러일으키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알린다.

사례1) 풍문여고 학생회

* 행사내용

- ① 설문지(1차) : 학생들의 현 상황 파악 및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 구축을 위한
- ② 3편의 비디오 상영 : 1,2학년의 편의에 맞는 시간 활용(HR, 단체시간)
- ③ 통일글짓기 대회 : 지원자 (대상과 우수상은 서울시에서 열리는 통일 글짓기에 참가)
- ④ 통일학 만 마리 접기 : 전교생들이 참여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 마련
- ⑤ 화장실 캠페인 : 학생들이 잘 드나드는 곳인 화장실을 거닐며 앉았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⑥ 사진전시 및 학 만 마리 전시 : 북한에서 찍어온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시하여 베스트 사진을 뽑아 다시 한번 전시
- ⑦ 버튼 판매 : 통일기 모양의 버튼을 팔아서 그 수익금 전액을 JTS라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보낸다.
- ⑧ 학습지 작성 :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좀더 주의 깊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정확한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였음
- ⑨ 설문지(2차) : 통일 행사 이후 변화 파악



■ 7월

- **농촌 봉사활동**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쌀을 만드는 농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좋아 알아보러 가자. 가서 쌀의 소중함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오는 거야!! 요즘 한-칠레 FTA등으로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왜 농촌이 어려운지 그리고 왜 신토불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 켤썩한 햇살과 함께 농활을 가보자!!

■ 8월

- **학생회 자체 M.T** 학생회 자체 M.T를 가보자. 지난 한학기 잘한 것, 잘 못한 것 한번에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풀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M.T에서 가져보자!

■ 9월

- **축제** 학생회 1년 행사의 꽃 중에 꽃이다. 축제는 1년 동안 기량을 닦은 동아리들의 전시, 참여, 공연 마당일뿐만 아니라 공부만 해야 하는 학교 분위기 안에서 학생들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회는 이런 학생들에게 즐거운 축제를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여학생, 남학생들만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미친 듯이 함께 놀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

■ 10월

- **한글 사랑 캠페인**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요즘 영어를 공통어로 쓰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영어 간판이다. 또 채팅 창에서는 한글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 한글 사랑 캠페인을 해보자.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진 한글의 중요성과 왜 한글 사용이 중요한지, 똑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리는 캠페인을 해보자.



■ 11월

- **수능 응원** 수능 보러 가는 고 3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다. 따뜻한 차와 사탕과 과자를 들고서 좋은 자리를 위해 전날 밤을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준비하는 행사이다. "다시는 수능을 위해 살지 말아라", "수능 만점 기원" 등등 여러 가지 플랜카드와 대자보를 가지고 선배들을 응원한다. 그리고 여러 학교가 모이면 응원전도 하니 함께 할 수 있는 구호를 정해서 가져가면 좋다.
- **11.3 학생의 날 기념행사** 선생님들을 위해 스승의 날이 있듯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의 날이 11월 3일에 있다. 이날은 일제 시대에 일제에 항거하여 중·고등학생들이 광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벌인 광주학생운동을 기리는 날이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 사회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날로 정하자. 먼저 학생의 날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문서나 영상, 팸트 형식으로 알린다. 그리고 학생회 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도 좋다. 그리고 강당에 모여 학생들이끼리 예전의 정신을 기려 학생총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례1) 풍문여고 학생회

역사적 의의, 역사 바로알기,

현실 자각 및 반성의 계기

* 행사내용

- 전시(배경, 만화로 된 전개과정, 의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앞으로의 방향, 관련 시, 사진, 플랜카드, 현수막제작 등)
- 강당공연(전개과정과 의의에 대한 연극, 선생님의 축하공연-'요즘 풍문은'이라는 풍자 팸트-스포츠댄스, 소원지 전시 및 태우기)
- 야침방송 / 기념식 : 상장수여 및 기념

■ 12월

- **학생회 소식지 만들기**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때에 마무리하는 의미로 학생회 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만들어보자.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하면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소식지에 이야기자기하게 담아보자. 이것은 학생회와 학생들이 소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1월

- **학생회 자체 M.T** 학생회 자체 M.T를 가보자. 지난 한학기 잘한 것, 잘 못한 것 한번에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풀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M.T에서 가져보자!

■ 2월

- **졸업식** 3년 동안 정들었던 선배들이 학교를 떠나는 날이다. 진심으로 졸업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보자. 선배들에 대한 후배들의 편지도 좋을 것이다. 학생회 차원에서 잘못된 졸업식 문화를 막아보자. 행가레나 아니면 계란 및 밀가루 던지기를 막는 캠페인을 해보자. 또 졸업선물로 반지나 목거리 등 비싼 보석 제품을 주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면 후배들의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로 대체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해보자.

■ 학생회 일상활동

건의함/각종 캠페인(환경, 학습, 금연, 질서, 건강 등)/교복 물려주기 및 공동구매/문제집 판매, 불우 이웃 돕기/복사기 운영/교장선생님 간담회/학급대항 구기대회/학생회 신문 발간/사랑의 편지/화진이/무료 엽서 배포/생일 챙겨주기/대자보 사업/학생회 홈페이지 및 카페 운영/설문조사/봉사활동/애틀/간부수련회, 대의원회, 학급회, 학생회 회의/발대식/영화상영/수능 응원/농활

■ 학교 행사

신입생환영회/선거/체육대회/입 졸업식/축제/11.3 학생의 날 기념활동/역사기념(4.19, 6.15) 활동/단오제/스승의 날/

■ 사회 참여 활동

학칙 개정/용의복장 규정 개정(공청회, 설문조사, 토론회 등)/급식 설문/복지부 운영/미션, 효순 추모/전쟁반대 활동/매점 설치 및 개선 운동/





(2) 학생회 일상 활동

■ 대의원회의

대의원 회의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가장 체계적인 방법이다. 각 반의 회장들이 반 친구들과 함께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한다. 이렇게 모은 의견을 각 회장 친구가 모인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학교 안 대의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등학교 현실 안에서 학급회의가 이뤄지는 학급은 그리 많지 않다. 대의원회의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학교 그리 많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이런 학급 회의부터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원 회의를 만들려는 노력 필요하다. 아래에 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부산 사직여고

- 1) 대의원회의 : 월1회,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회의가 항상 정착되어 전 회의가 잘 진행되는 경우 많으면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대의원회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져 학생회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발언이 굉장히 적극적이며, 매우 진지합니다.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학급회의와 게시판 공고를 통해 전교생들에게 전달되며, 대의원회 후 운영위와 학생부 각 사항과 관련된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 사항들을 전달하며, 선생님들과의 간담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실제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례2) 풍문여고 학생회

- 1) 공개회의 : 학교의 행사 및 예산인준, 학생회 사업 및 행사 평가 시, 기타 회의 시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2) 학생회지 '참따랑게'발행 : 학생회에서 내는 회지로서 학생회의 사업 진행 과정, 행사 평가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학생의 입장으로 볼 수 있었던 사업, 학교의 객관적인 신문과는 성격이 다른 학생회 정보지로서 학생들의 충고 현재 우리풍문의 모습 등을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학생들의 분위기 조성파 학생회 존재 인식 학생참여를 유도했던 사업.
- 3) 대의원회 표시기 : 대의원회가 있는 날은 안전일시 장소를 쓴 대의원회 표시기가 각 반 칠판 왼쪽에 게시된다. 이 표시기는 대의원회의의 안전과 대의원들에게 회의 참여의 의무감을 줄 뿐 아니라 표시기에 각 학년 반을 표시해 두어 회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반을 꼼꼼히 체크하여 학급 전체에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다.

■ 캠페인 활동

사례1) 풍문여고 학생회

- 진학정보 캠페인 : 풍문인이 관심 있는 학과, 유망학과의 대학의 입시 정보와 학과에 따른 진로 및 직업정보를 각반 학예부 게시판 '하늘을 향해 날아라'에 매달 2번 1일, 15일으로 게시
- 뽕박부 캠페인 : 풍문인의 건강에 관련된 제조, 밤참, 수능에 필요한 기억력 상승법, 영양소 섭취, 다이어트, 지압법등 풍문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내용을 만화 또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한달에 2번(15일 간격) 내용을 바꾸어 각반 체육부게시판인 뽕박부 게시판에 게시한다.

사례2) 동명여고 학생회

〈문화 시민운동〉

1. 기간 : 5월 27일~6월 8일
2. 목적 : 민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를 지킴으로 민주 시민으로써의 재량을 갖는다. 그리고 2002년 한 일 월드컵 축구 대회를 맞이하여 친절, 질서, 봉사 등 문화 시민운동을 펼치므로 성공적인 월드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3. 캠페인
 - (1)기간: 5월 27일~5월 31일
 - (2)장소: 교문 앞 등교로
 - (3)목적: 문화 시민으로써의 의식을 갖는다.
 - (4)내용: 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킴시다.



- ② 바른말, 고운 말을 씁시다.
- ③ 환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 ④ 친절할 동명인!
- ⑤ 스마일, 동명의 얼굴입니다.
- ⑥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 ⑦ 화장실은 문화 시민의 척도

(5) 캠페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최소한 캠페인을 하지 않을 때 보다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것이다. 피켓에 써 있는 문구를 보며 자신을 반성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비로소 문화 시민의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4. 급식실 한 줄 서기

(1) 한 줄서기란? : 지난 5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변형운)'가 '한 줄로 서기 전국추진선언식'을 개최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한 줄로 서기' 운동은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 창구마다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줄에서 자기 차례에 따라 개별창구를 이용하는 새로운 줄서기 방식이다. 이러한 시민질서의 새로운 흐름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 실태 : 각 반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고 먼저 먹으려 줄을 서지 않는다. 그리고 새치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3) 방법 : ① 각 반 회장이 일주일간 학급의 급식 시간을 통보한다.

② 각 학급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급식실로 향한다.

③ 줄 서는 모습

■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는 활동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든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 야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 학생의 삶일 것이다. 별보고 학교 가서 별보고 집에 온다. 이런 학교에 일반 학생들이 어떤 흥미를 느끼겠는가?! 학생회는 이런 일상이 힘든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고 활동도 함께 해야 한다.

사례1) 용문고등학교 '정'콘서트

* 취지&동기 : 학생회 주체이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 추천이유 : 용문고 학생회의 대표적인 두 활동이 축제와 정 콘서트인데 정 콘서트는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사이므로 이 행사를 추천하게 되었다.

* 활동서술 : 콘서트이니 만큼 공연위주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다. 주변의 여러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특히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동아리들에게 찬조를 받아 공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연주, 중창, 댄스, 밴드, 연극 등을 공연한다. 조명, 음향기기 등의 무대장치와 찬조비, 홍보 비등의 지출은 콘서트 입장권을 팔아 그 수입금의 일부로 쓰여 지고, 나머지 순이익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전달된다. 전달 할 때는 학생회 임원들 모두가 가서 봉사활동도 한다.

* 얻은 점, 느낀 점 : 준비하는 동안에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다같이 고생도 하면서 단합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남을 도와주는 보람된 일을 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낀다. 다 경험이 되는 거 같기도 하다. 학교이미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학생들의 반응 : 입장권은 주로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파는데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참여해 줘서 팔면서 힘들어도 맛을 느낀다. 근데 막상 콘서트 당일 날에는 우리학교 방학식날에 맞춰진 날이라 그런지 많은 관심이 있는 거 같진 않다. (우리학교가 방학을 좀 늦게 하기에)

* 부족한점 : 일단 학교의 지원이 전혀 없기에 돈에 부담이 간다. 학생회에서는 큰 사업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돈은 그 욕심에 만족할 만큼이 아니어서 학생회 간부들의 사비가 쓰여 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학교에 아쉬움이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지적이었는데) 내용면에서 취지는 불우이웃 돕기인데 막상 공연 시 불우이웃에 관한 무엇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거 같다. 중간에 불우이웃들의 현실이나 그 심각성 등을 영상이나 사회사 멘트이라도 집어넣어서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또 전통적이고 큰 행사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례2) 풍문여고 학생회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 3기 때부터 실행된 사랑의 편지는 학생들의 편지를 받아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점심시간이 있는 날이면 1년 내내 운행한다. 3교시 쉬는 시간에 각 반에 들어가 학생들의 편지를 받거나 교내 곳곳에 있는 5개의 편지함을 통해 편지수거. 그리고 3교시에 모아진 편지는 점심시간에 주인에게로 배달된다. 일종의 교내 우체국 역할

대자보 사업 : 학생들에게 알리는 글로 학교의 행사 참여 또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은 정보물. 예)달 대자보 : 월초에 그 달의 학교 학사 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대자보로써 배경 그림과 함께 달의 시작됨을 알림 예) (4월) 잎새 달, (10월) 열매 달 등의 달 이름을 쓴다.



■ 사랑받는 학생회 만들기

학생회는 외롭다. 정말 자기 몸, 시간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학생들에게 "학생회 너희가 하는 일이 모아?!"라고 듣는 것이 다반사이고 막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애들이 과연 따라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학생회는 원래 외로운 집단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제학생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풍문여고 학생회

- * 화진이 : '화장실에서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화장실 낙서판을 통하여 학생의 의견수렴(비판 및 건의) 학생들의 속내를 알기 위해선 익명성이 보장된 학생들과 직접 대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화장실이라는 곳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익명성도 보장되고 또한 깊은 말들이 오고가는 곳으로 적합하다. (토론도 가능) 단 물론 이점이 큰 또한 매일 종이를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잔손 일이 많이 간다는 것과 낙서판이다 보니 선생님의 혐담이나 유언비어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한다.
- * 설문지 제작 및 배포, 통계주관 : 학생회의 사업 등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통계를 낸 후 학생들에게 알리고 결과의 대책을 알린다.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보통의 방법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한번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공이 든다. 설문지를 제작할 때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낼 것이며 설문지의 문구 맞춤법등을 꼭 지킨다. 그리고 설문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뀐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 영화상영 : 학생들의 작은 컴퓨터 교실극장. only feel 이라는 이름아래 학생들이 불만한 영화 수업에 관련된 영화 등 매회 테마를 정하여 매월 셋째 주 목-금-토요일 방과 후 1일 2편 2회 상영하고 있다. 영화상영이 있는 날에는 영화상영 표시기, 영화제목과 함께 각 반 칠판에 붙여 학생들에게 알린다.
- * 무료 엽서배포(무료잡지 및 외부 신문 배포) : 에드렉스에서 무료 엽서를 받아 학생회실에 게시해 놓고 언제든 필요 할 때 학생회실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한 달에 3-4회 각반에 배포된다. 이것도 학생회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는 사업이다.
- * 학생회만의 이미지 또는 도장(or 배지) 등을 만들기 , 많이 보여주기 : 학생회인을 공인으로 만들어야 학생회가 항상 옆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학생회는 특권의 집단 이질의 집단이 아닌 학생들의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학생들의 눈에 쉽게 띄어야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 늘기 때문에.



현 학생회의 실태와 문제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천천히 갈라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애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아냐

술 가볍게 즐리가는 여기 도시의 소음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 놓치지길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 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마음 조금은 쉬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갈라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애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아냐





10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본 학생회 활동의 현실

■ “선생님이 하지 말래요”

현재 학급회의, 대의원회의에서 나온 안전이나 건의사항들이 실제 학교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심지어 학급회의 주제, 대의원회의 주제도 정해져서 내려와 회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또한, 축제, 학생의 날 행사 등 행사기획안을 학생회가 작성하여 담당교사에게 갔을 때 'OK' 사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학생회 간부들의 구상은 교사 선에서 멈추고 통제당하여 자유롭게 학생회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 두발 규정, 용의복장 규정 문제점, 학칙 개정, 급식 문제 등을 학생회에 건의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눈치 봐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것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학생회 간부들은 이상하고 불순한 학생으로 낙인 찍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징계 운운하며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왜 학교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나?”고 훈계하는 것이 일반적 학교의 모습이다. 학생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되고 보장되지 않는 이런 학교 풍토 속에서 학생회 활동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학생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 선생님에게 검토 받아야하고 선생님이 “NO” 했을 경우엔 학생회간부들의 포부도 계획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생님들의 허락 없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 정말 큰맘 먹고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학생회는 늘 학교 측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 측의 태도이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학생회 활동 활성화하라고 공문을 내려도 이런 학교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 학생회 활동 제도적 보장 미비 (학생회칙의 문제점)
- 학교 측의 학생회 활동 통제 및 제지
- 학생 교사간 학생자치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 학교 측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비협조적 풍토



■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저마다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으로, 진정한 학생의 대표가 되고자 학생회장에게 출마하고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학생회장/ 부회장이 당선이 된다.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당선된 학생회 간부들은 작년과 다른 학생회, 말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뭐든 열정적으로 해볼 작정으로 달려든다. 하지만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막상 임기가 시작되고 학생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마음만 앞섰지 어떻게 회의진행을 하는지,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는지, 축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면서 터득해 가야한다. 그렇게 1년 동안 허덕이다가 임기를 마감하고 다음 기수에게 학생회를 물려준다. 학생회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구나 알만할 때쯤이면 임기가 끝나거나 학년이 올라가 더 시도할 수 없고 다음 기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 수록 그 학교의 학생회 활동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걸음을 치게 되고 활동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임기초기의 “잘 해보겠다”,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처음의 마음과는 달리 현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학생회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실질적인 학생회 간부 교육 부재 (인성프로그램 위주의 리더십 교육뿐)
- 전년도 학생회 활동 자료 및 평가 등이 새 학기 학생회에게 넘겨지는 과정 결여

■ “학생회 애들이 안 모여요”

막상 학생회 간부가 되었지만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발로 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생회 활동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인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회 간부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못한 간부들이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학생회 활동 하려는 간부들 몇몇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모이라고 해도 안모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열심히 하려는 몇몇 간부들은 학생회 간부들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고 학생회는 불안정하게 운영되고야 마는 것이다.

- 학생회 간부들의 의식, 책임감 부족

■ “학생들이 문제야”, “학생회가 문제야.”

학생회 간부들은 흔히 건의함에 아이스크림 막대, 과자 봉지, 휴지 조각만 들어있고 학급 회의 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축제 때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하지도 않는 일



반 학생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회 하는 것도 없다고 욕이나 하고 고생을 몰라주는 학생들이 원망스럽다고 호소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을 보는 관점이다. 거꾸로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 간부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마찬가지다. “학생회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선거 때만 반짝하고 당선되면 하는 일도 하는 게 없다”, “대학 갈 때 유리하니까 학생회 하는 거 아니냐”, “잘난 척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회가 학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
- 학생들의 학생회의 불신

■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학생회 그거 하면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뺏기는 것 아니냐?”
 “공부해야지 무슨 학생회야, 이번만 하고 하지마라.”
 “학생회다 뭐다 하면서 맨 날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안하고 탈퇴해라.”
 가족이나 도와주는 곳 없고 어려움 투성인 학생회 활동이 집에서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께서도 당장 내 자식에게 손해가 날까하여 학생회 활동을 환영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이다. 축제 준비로 늦게 집에 들어갈 때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원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 꾸중 듣고 혼날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상 집에 들어가서 혼나고 그것을 계기로 학생회 활동을 중도하차하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학생회 활동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 “내 자식이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그럼 학교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 “스승의 날인데 신경써야하지 않냐?”, “이번 어머니회에서 뭘 맡아서 해야 하지 않냐?” 등등의 부담으로 시작하여 실제 몇 백 만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다거나 스승의 날에 자식 몰래 선물을 챙겨드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학부모들의 학생회 자치 활동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낳은 학부모들의 인식
- 학생활동에 지지, 지원 하지 않는 전 사회적 풍토

■ “지원금이 너무 없어요.”

예산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이다. 학생회 활동을 못하거나 학생회 간부들이 사비를 털어서 활동을 하거나... 학생회 활동 예산을 넉넉히 책정하는 학교는 거의 드물다. 학생회 간부들도 언제 어떻게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벽이다.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인 교사가 있는 경우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여 일정정도는 따내겠지만 일반적인 학생회 간부들은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을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학생회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어떤 학교는 일반학생들에게 모금통을 돌려 학생회비를 마련하려 했던 사례도 있다. 학생회에겐 예산권은 없고 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활동에 대해선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학생회 예산권 미비
-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 미흡

■ “시험, 공부 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학생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일 것이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등 시험 전후로 시험의 압박으로 학생회 모임을 한다는 것, 학생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모든 학생회가 관행적으로 시험 준비기간에 들어하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시험 끝나고 다시 재개 하게 된다. 또한, 고3이 되면 임기가 6개월 동안 남아있지만 학생회 활동에 손을 떼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공부와 성적 때문에 학원도 가야하고 보충도 해야 하고 과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어 학생회 모임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닌 것이다.

-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천대 당함
- 학원, 야자, 보충 등 학생회 활동할 시간 부족

■ “학생회끼리 마음이 너무 안 맞아요.”

학생회 구성원끼리 단합이 잘되고 잘 뭉치고 일처리를 확실히 처리하는 학생회가 있는 반면, 학생회끼리 사이가 좋지 않고 단합이 안 되는 학생회도 꽤 존재한다. 애시 당초 학생회를 구성할 때,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들끼리 득표순으로 회장 - 부회장 - 부장을 맡아서 회장이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라거나 시기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끼리끼리 문화의 연장으로 학생회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끼리 뭉쳐 다니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회 일에 지치고 학생회 활동에 회의를 느끼게 되며 어떤 일도 뜻대로 추진되지 않게 되면서 학생회 활동이 약화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학생회 구성 방법상 문제
- 학생회 단합력 부족



■ “이게 동아리야? 학생회야?”

학생회와 동아리는 엄연히 그 차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생회가 학교일을 하는 또 하나의 동아리인양 착각하는 간부들이 있다. 그래서 동아리의 비민주적인 낡은 문화들을 학생회가 고스란히 따라 배우고 이를 시행하는 학생회들이 존재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배들이 후배들 단체 기합 주는 것이라던가, 다른 학교 학생회장 대면식을 문화 (교류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대면식 문화를 지적하는 것임) 라던가, 선배들에게 90°로 꺾듯이 인사를 해야 하고 신입생 시절 인사교육을 받는 것이라던가, 신입생 선발 시 동아리 신입생 뽑을 때처럼 비슷한 방식과 면접 문구로 학생회 차장을 선출하는 관행들 등을 꼽을 수 있다.

- 학교 내 군사문화, 비민주적인 낡은 문화 존속
- 진정한 학생회에 대한 개념 부족

■ “학생회야? 학교회야?”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학생회 간부들이 거꾸로 학생들 머리꼭대기에 올라앉아 군림하려는 모습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학생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인 양 착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학생회 간부들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용의복장 두발 규정을 개정하자거나 학교 측에 대해 비판을 하면 학생회가 나서서 무마시키고 학생회가 앞장서서 훈계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난 웃지 못 할 사례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어떤 학교에서 학생회에 용의복장 두발 규정을 정해보라고 해서 학생회끼리 회의하여 짠 안은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기존 규정보다 더 엄하게 짰다고 한다. 또,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어떤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 지나다니는 학생들 주머니 속에 손을 직접 넣어 핸드폰을 압수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어떤 학생들이 화장실에 두발 등 잘못된 학교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를 본 학생회가 선생님 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떼버렸다고 한다.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주입한 내용들을 무조건 수용하여 이를 찰떡같이 믿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회 간부가 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순수하고 용감한 목소리나 내용들이 선생님 앞에서 통제당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 선에서 잘리게 되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이 무조건적으로 저항성을 띄어야하고 앞질러 가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잣대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나 현실은 이런 잘못된 학생회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학생회 간부들의 의식 부족
- 기성세대의 잘못된 가치관 주입이 낳은 현실



학생회의
발전 방향 및 대안





학생회의 문제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 학생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학교 운영을 의결 하는 학운위에 학생 대표(학생회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법문항 수정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와 활동을 어디에도 보장하지 않는 초·중등 교육법 조항들을 개정하고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 제도적인 문제

① 의미 :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제도적(법, 규정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일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어떤 문제들이 있나?

〈표1〉 제도적 문제의 분류

제도적 문제를 나눠보면	정책·이념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학운위 참여×
	법	관련법 보장×
		학생활동 억압 조문(징계 등)
		지도위원회
	학생회칙	예산권×
		자격제한
		회칙에서의 목적
		회칙에서의 금지활동
	보장 안 됨	교사 맘대로
		학생회살기기 지원×
		예산권×
표현자유×		
결사행동 자유×		



1) 국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자치활동의 개념과 지위가 맞지 않다

학생회 활동이 속하는 자치활동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일부이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치활동은 협의활동, 역할분담, 민주시민활동으로 나뉜다. 교육과정 속에서 자치활동을 교육의 일부로 보는 것은 맞지만 그 위상을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분담을 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학생을 주체로 보는 학생중심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의 활동보장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4장(학교) 2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31조(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31조의 2(결격사유), 32조(기능), 33조(학교발전기금), 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32 조 기능을 보면 ①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함을 알 수 있다. 많은 부분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31조(설치)에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고만 나와 있어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 보내진 공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해석을 "학생대표도 참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한 한 것이고, 참관시키는 것은 개별학교 교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관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3) 관련 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의 자치활동 보장은 모호하고 부족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으며 학교장에게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권 위임되어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같은 교육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원할리는 만무하다.

4) 의결권이 없다

학생회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학생회칙에서 대의원회의의 기능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이라고 나와 있지만 반쪽짜리 의결이다.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지도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의원회의의 결정사항이 지도위원회를 거쳐 잘리는 등의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학생회 활동들이 학생회 지도교사의 선에서 통제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지도위원회의와 같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일이 아님에도 학교안에서 자연스럽게(교사의 성향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학생회 활동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5) 예산권이 없다

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회에는 예산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법에서는 자치활동에 관한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회칙에서는 학생회가 짠 예산안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된다고 나와 있다. 학교의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만을 학생회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함에도 학교에서는 예산권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산권이 없음으로 해서 학생회 활동의 기획부터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회칙에는 학생회 예산의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된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 등록금을 낼 때 학생회비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운영회비(또는 다른 명칭으로) 등으로 내고 있다. 학생회 예산으로 쓰여 져야 하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회 예산은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학생회 예산은 학생복지비 안에 포함 되어 있다. 학생복지비라는 개념이 자치활동 예산이 편성될만한 성격인지가 불분명하고 학생복지비 내의 학생회 예산은 전체 학생회 예산에서 학생회가 자유롭게(학생회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다.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편성된다. 예로 축제예산은 특별활동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한 학생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부서에 나누어져서 편성되는 상황은 학생회가 예산권을 갖는 것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덧붙여 학교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다.

6) 학생회 간부의 자격제한이 있다.

학생회 간부가 되는 것을 성적이나 징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성적제한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들이 있으며 징계로 인한 제한은 거의 모든 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학생회가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됨이 옳다.

7) 학생회칙 상에서의 학생회의 목적은 맞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회칙의 목적에서는 "본회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거나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틀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대표로서 다양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국가의 자치활동개념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큰 개념이 바뀌는 것과 세부적 규정에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8) 학생회칙에서 금지활동이 불필요하게 존재 한다.

정당,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활동을 막거나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은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학생회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학생통제를 위한 규정이다.

9) 표현의 자유가 없다.

학생회가 자율적으로(검열을 받지 않고) 게시판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모든 게시물은 검열을 받고 학생부장(혹은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의 도장을 받아야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학교 방송 역시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다. 학생회 활동이 학우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검열 없이도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게시판의 운영이나 방송의 사용 등은 규정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모호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의 학생 선동 등)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

10) 결사, 행동의 자유가 없다

허락을 받지 않은 설문조사, 서명운동은 학생회가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교사, 지도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학생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이러한 활동들이 보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라도 학교에서 이런 일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회는 대의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부분이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교장은 징계규정을 만들고 마음대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징계에 대한 제도도 민주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11) 학생회실, 기기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학생회가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여서 회의할 장소조차 없다면 학생회 활동이 잘 될 수가 없다. 학생회 활동은 애들 장난이 아니며 많은 업무가 있다. 이런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실, 활동기기는 기본 지원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적 보장은 없다.

③ 대안

지금까지 다양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열거했다.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제도에서 학생회 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으로 학생회 활동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제도를 바꿀 때에는 억압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거나 억압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 그리고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회 법제화'라는 구호로만 이야기해왔다. 학생회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제도적인 측면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듯이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의 법안 내용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해왔다. 즉, 자치활동의 권장보호만을 명시하고 있는 법조문을 학생회실을 보장해야한다거나 학생회의 예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지도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문제들을 조사하면서는 그간 이야기해왔던 법제화(물론 우리의 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가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중등교육법이라는 상위법에 학생회의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학생회칙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을 훨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보다는 그에 걸맞게 제도화를 해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회 법제화를 이야기할 때 바꾸자고 하는 부분)만 바뀐다고 해서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하며 법을 바꾸는 것만이 아닌 학교현장의 세부적 제도들 또한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17조를 개정해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학생회 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의 내용으로도 억압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제정이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박탈하는 법개정을 하려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의 어느 부분에서도 스스로 바뀌는 일이란 없다.

또한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 이념과 철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이념 또한 쉽게 바뀔 수가 없다. 현재의 교육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책이란 외국의 정책을 모방하고,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어본다.

1) 학생회칙의 개정

학생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학생회칙이다. 지도위원회나 금지 활동에 관한 사항등을 일단 바꾸는 것부터 학생회 활동의 보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칙의 개정이라는 것이 선거 시기나 부서를 바꾸는 것 등 쉬운 부분도 있지만 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 넘겨줄 수 없는 권한에 관한 부분(지도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학생회칙을 개정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상위법에서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2) 관련법의 개정

학생회 활동을 학생회칙보다 상위법에서 보장한다면 학생회칙도 그에 맞게 개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관련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회계규칙 등이 있다. 하나 법이 제정개정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책과 이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과 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국가정책에서 자치활동개념의 변화 필요

지금과 같이 자치활동이 교육의 일환으로써만 생각되어지고, 특별활동의 일환으로만 허용되는 수준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내용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

(2) 학생회의 유일한 교육의 장인 『간부수련회』 혁신해야한다.

인성교육 위주로 짜여진 리더십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의 실제 내용과 밀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이 1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럴 수 있는 학교 안 장치(C.A / 방과후교육) 마련한다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나 청소년 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학생회의 유일한 교육의 장인 『간부수련회』 혁신해야한다.

인성교육 위주로 짜여진 리더십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의 실제 내용과 밀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이 1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럴 수 있는 학교 안 장치(C.A / 방과 후 교육) 마련한다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나 청소년 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선배들의 적극적인 전수 과정 필요하다.

학생회 선배들이 졸업하더라도 1년 정도 학생회 임무를 다하는 풍토를 세워야 한다. 임기가 끝났다 해서 학생회 활동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후배들이 알아서 해야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버리고 누적되지 않고 늘 소멸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후배 자문 사업을 해야 한다. 선배들이 중심으로 그 학교 학생회를 위한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현실성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된다. 이런 자리를 통하여 선배들의 경험속의 노하우, 한계들을 적극 알려주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생회의 첫 단추인 학생회 구성부터 잘 해야 한다.

학생회에 가산점만을 위해서 지원한다거나 열심히 할 것 같았지만 말만 한다거나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된 학생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후보들이 선거 선출 과정에서 한번 걸러 질 수 있도록 선거를 해야 한다. 적당한 선거 시기, 구성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 선거 시기현재 중, 고등학교 선거 시기는 6월~7월, 11월, 12월, 2월, 3월이고 임기기간으로는 는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3학년 2학기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선출 시기로는 학기 말, 학기 초가 적당하며 학기중간은 지양해야한다.

- 선거 방법현재 선거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거나 개별후보(1인 당선, 득점순 간부임명)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방식이다. 그간의 사업에서 러닝메이트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뜻이 맞는 회장단이 활동을 해야 활동이 잘 이루어지며, 차득점자는 활동에서 협조를 잘 안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학년은 입시라는 문제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배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2학년이 해야 한다.

- 구성 방법현재 구성방법은 ㉠회장이 임명, ㉡교사가 임명, ㉢공개면접을 통해 회장단이 임명, ㉣공개면접을 통해 선배들이 임명, ㉤공개면접을 통해 회장이 임명, ㉥회장단과 교사가 나누어서 임명, ㉦교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회장의 추천으로 교사가 임명, ㉨대의원중 선발, ㉩일반학생 중 선발 등이 있다.이 중 교사의 개입 없이 동 학년은 회장에게 임명권한이 있고, 후배들은 공개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을 같이 하거나 회장과 뜻이 맞는 간부들이 같은 학년 간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서로 모르는 같은 학년은 회장이라 할지라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후배들은 공개면접을 통해 개방적인 학생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회장이 모든 후배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개면접 과정을 통해 학우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여론을 모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제3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방식에서 장점만을 접목시킨 새로운 방식을 해볼 수도 있겠다. 회장이 믿고 할 일할 만한 친구들을 추천하고 새로 하고 싶은 친구들까지 와서 면접을 보는 것이다. 혹은 강제성은 없지만 추천을 하는 추천제도(교사추천, 일반학우 **명 추천, 회장-부회장 추천)를 접목시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간부들로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부장-차장 선출시 유의할 점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때는 책임감 없이 단순히 친분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이나 어떤 간부가 필요한 것인지 선행 담화가 필요하다. 객관성을 요하는 경우 동아리처럼 면접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학생회 간부로 선출하겠지만 1회적인 면접으로 열심히 활동할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선별하기란 어렵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면접질문을 짜야할 것이다.



■ 학생회가 단합해야한다.

학생회 단합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

- 원천적으로 대립되는 관계를 막아야함. (차점자 순으로 부장 시키는 제도는 없애야함)
- 단계적으로 친해지자! (놀이, 관계형성프로그램,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나 쌓인 것 풀고 높이 갈수 있는 장치를 하자)

■ 쓸모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 현재 부서 현황

총무부, 학예부, 봉사부, 체육부, 홍보부, 학습부, 환경부, 선도부, 서기, 자율부, 전산부, 훈련부, 종교부, 선교부, 음악부, 미화부, 언론부, 편집부, 통일안보부, 행사기획부, 생활복지부, 문화홍보부, 친교체육부, 섭외홍보부, 바른생활부, 과학부 등.

운영위 내에서 부서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모임을 구성하는 경우.

㉠부장만 있는 학교, ㉡부장차장이 있는 학교, ㉢부장차장부원이 있는 학교. 회장단의 구성은 최소 2명부터 최대 5명까지.

• 지금 구성된 부서가 적절한가?

현실에서는 부서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많다. 부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생회 전체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 학생회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들은 대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학교들이다. 안정적인 체계로 활동을 하려는 학생회는 부서별 사업을 계획한다. 1년 계획을 부서별로 계획을 하는 것이다.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부서별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학생들이 사고하는 것인지, 유연적인 요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회가 5가지 역할의 사업을 모두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게 된다. 많은 사업을 모두 회장이 책임질 수는 없다. (폭주, 간부 책임감 저하 등) 이는 체계적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사업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사업들은 역할에 따라 분류가 나뉘어 질 수 있다. 또한 나뉘어 진 분류를 나머지 간부들이 책임 맡을 수 있다. 결국, 부서와 같은 조직형태(모든 간부들이 고유의 책임을 맡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서체계여야만 하는가? 사업별로 팀을 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유동적인 '팀체계', 고정적인 '부서제', 모두가 한가지씩 올인하는 '올인제' 중에서 부서활동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 필요한 부서

쓸데없는 부서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 없애고 학생회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부서들이 생겨야 한다.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서, 학교행사와 관련한 부서, 의식을 높여내고 사회참여를 시키는 부서, 서기, 총무, 학생들과 소통하는 부서 등

Ex) 독일중에서는 올해 새롭게 부서체계를 개편했다. 총무부, 선도부, 생활복지부, 문화홍보부, 행사기획부, 서기

■ 대의원회의, 학급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급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다. 교사가 학급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학급 정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의원회의 역시 안 열리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회의 때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들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 의해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간부수련회 교육을 통해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이야기하지만 학교현실에서 그 활동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회의의 주제, 진행방법, 대의원과 운영위원들의 연계 부족 등도 대의원회의와 학급회의를 어렵게 한다. 대의원회의와 학급회의는 일단 사례부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의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잘되는 사례, 일반적 사례, 안되는 사례)를 알아야 한다. 그 현실파악을 통해서 대안을 세워볼 수 있겠다.

■ 학생회가 일반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한다.

학생회는 일반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학생회는 일반학생들의 심부름꾼이고 일꾼이고 대변자, 마당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반학생들이 가지는 학교와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내야 하겠다. '해도 안돼, 한다고 달라지나??' 라는 두꺼운 불신의 벽을 뚫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 이상 학생들이 안 따라 준다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학우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지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학생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하는 것은 일반학생들의 자치활동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애정을 가지고 학생자치활동을 소중히 생각하여 학급회의나 학생회 일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학생회 활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권위주의적이고,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교사



수직적인 학교구조 속에서 교장을 위시한 보수적 교사집단들의 의식이다. 교육이란 사회가 요구하는 말 잘 듣는 순종적 인간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를 벗어나는 자치활동은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치의 부분은 최대한 억압한다.

- **교사가 귀찮아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것이 자치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교사**

어느 정도의 자치활동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자치활동이란 진정한 자치활동이 아닌 교사의 일을 대신 해주는 수준의 가짜 자치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한다. 자신이 귀찮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공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대학을 가는 것이 학생들에겐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치활동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흔히 “대학가서 해라”라는 말로 대변되며 자치활동도 성적에 도움이 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

- **스스로 하는 것은 기특하나 교육적 관점에서 필요하며, 학생을 진정한 주체로 생각지 못하는 교사**

현재 자치활동을 많이 지원해주는 교사들 중 많은 경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훌륭한 활동이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함이 필요하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거나 학생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주체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 **학생들의 수준과 자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혼자 앞질러 나가는 교사**

자치활동에 대한 열의는 높지만 그 관점의 부족함이 있다. 혼자서 생각한 것들을 모두 하려고만 하면 그 현실에 맞지 않는 학생들과 부딪힘이 발생한다. 학생들이 싫어하거나 지치게 될 수 있다. 결국 교사 자신도 많이 지치게 되어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 **종합하여 보면**

교사의 문제는 첫 번째로 권력에서 나온 의식이 있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이다. 이런 교사들의 의식은 거의 바뀌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 수직통제적 구조(또는 입시구조) 속에서 학습된 의식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자이기에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고, 네 번째로 거대 구조와 개인의 대립으로 갔을 경우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 **부모님을 내편으로 만들자!**

입시기간만큼은 학교를 위해 봉사해야한다는 것을 빼기 박고 지지 지원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늦게 들어오는 문제, 학원과 과외 조절, 가끔씩 하는 외박 인정, 용돈 지원 등등..) → 당선되고 나면 부모님 좋아하실 때 이부분에 강조를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암묵적인 지지, 지원을 끌어내야한다. 또한, 존지, 상납금 관행 없애도록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에 대해서 그런 상납 관행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돈 있는 애들이 학생회 하는 것 이라는 선입관을 없앨 수 있다. 지금 현재 기수에서 끌어주어야 다음기수에서 안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맡았을 때 없애지 않고 또 한다면 다음 대에도 다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 **근본적인 사회 구조와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을 바꿔야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바뀌 입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여유 있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이 내신등급제와 관련해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마치 90년대에 있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처지와 대비된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생회활동 혹은 동아리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학원다니랴, 수행평가하랴, 여기에 서로 경쟁하게 되는 문화까지 덧붙여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생회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학생들의 전반 현실을 바꿔 내고, 학생회 또한 자신의 활동에서 저해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꿔 내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학생회 활동을 펼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축제

[축제 준비에 들어가며]

(1) 축제란

축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당당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 끝나는 순간엔 어디서인지 모르게 눈물이 솟아나온다. 감동과 흥분, 우리들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 공간으로 달려가고 싶다.

축제 전 두 달은 축제 준비로 축제에 빠져 살고, 축제가 끝나면 몇 주는 축제 후유증에 빠져 살게 된다. 이렇게 축제를 한 번 하면 두세 달은 축제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별 것 아닌 행사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회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 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만 축제를 치르는 순간에는 삶의 전부와도 같은 느낌이다.



축제가 뭐길래 우리를 이토록 가슴 뛰게 할까? 사전적 의미로는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축제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경축하여 즐기는 행사보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축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에서 기획, 전시, 공연, 실무, 평가까지 모든 준비와 내용 채우는 것을 학생들이 한다. 선생님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회는 축제 전체의 주제와 방향을 잡고 큰 틀의 준비를 해나가며, 그 안의 세세한 내용은 동아리와 학생들 스스로 채워나간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주된 생활인 학생들에게 축제만큼 전면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활동은 없을 것이다.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신들의 능력을 발견하며, 자치활동이란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축제는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되는 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는 학교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담아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은 학생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주제가 잘 담겨있는 내용성 있는 축제일 때 가능한 아주 중요한 의의이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생한 삶이 담기고 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출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축제라는 장이다.

축제는 학교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장이다.

아침에 등교해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학교 안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선생님의 특별한 노력이 있는 학교라던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니면 일상적 공동체는 어렵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축제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고 즐기는 장이 된다. 축제를 치러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공동체에서 나온다. 축제를 통한 소소한 감동사례들이 많은 것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학교라는 집단에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축제는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장이다.

학교의 정해진 일과, 정해진 공부만 한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은 발산할 곳을 잃게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날리고, 모두가 품고 있는 끼와 에너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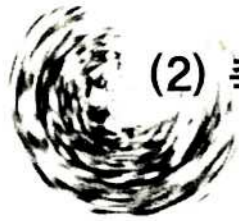
를 발산하는 곳이 바로 축제다. 각자의 재능과 관심이 다르고 삶의 활력이 필요하다. 축제를 잘 치르고 나면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고 학생들의 자신감이 생겨난다.

축제는 학생들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장이다.

학생 스스로의 문화는 없고 어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리고 방송매체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현실에서 축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축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문화를 가지고 표현되며 이것은 베껴오기보다는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축제를 통하여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건강한 학생문화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이 축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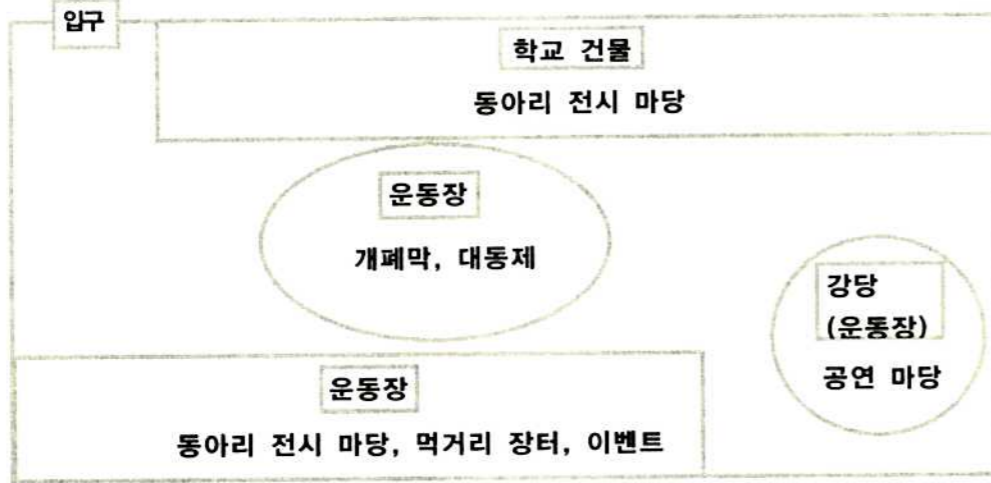
축제를 잘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준비하는 학생회 간부들 개개인에게 모두 의미있는 활동이지만 그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학교와 학생들 전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학생회의 역할이 참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표이기에 이런 역할이 주어지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에 이런 의미까지 있다고 한다면 학생회 스스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수천 개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천 개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학생회가 있다. 축제(준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의미를 잘 새기고 힘차게 준비해나가자.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가 되자.





(2) 축제의 구성

① 축제 전체의 구성



1. 개막식

2. 학교 내부 축제관

동아리 공연, 체육대회, 가장행렬, 교사합창, 전시 등

3. 개방 시 축제관

▶ 전시 (동아리 이벤트를 합니다. 예: 도서반 → 퀴즈내고 선물주기)

도서반, 전산반, 과학반, 만화반, 사진반, 미술반, 꽃꽂이반, RCY, 한별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미술반, 역사반 등등

▶ 먹거리 장터

▶ 공연 (강당-야외)

댄스제, 가요제, 방송제, 찬조공연팀, 응모권 추첨, 동아리공연팀(사물놀이 공연, 부채춤, MRA SING OUT 등), 장기자랑 등

▶ 폐막식 & 대동제

회장선생님의 폐막 멘트("이것으로서 축제를 마치겠습니다!"), 대동놀이(풍물패의 길놀이, 아판굿공연, 기차놀이, 달팽이, 짝춤, 모닥불, 불꽃놀이, 동아리별 구호소감)



▶ 학생회코너 - 팸플릿 배포, 축제본부석, 도우미배치, 축제관 안내, 교문인사, 이벤트 (예: 도장찍어오기, 현상수배 등)

② 축제 프로그램 사례

1. 동아리들의 전시, 공연 마당

▶ 동아리들이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예시안

예1) 스포츠 댄스부

- 공연목적 : 스포츠 댄스의 경쾌함과 건강함을 알린다.
부정적인 스포츠 댄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흥겨운 분위기로 다같이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준비 위원 : 스포츠 댄스반

예2) 방송반

- 공연목적 : 평소 학생들에게 방송을 들려주지만 했는데 축제 때 방송제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여러 분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위원 : 방송반
- 내용 : 뉴스, 종합구성, 변사극, 드라마 등 4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어른들은 몰라요"란 큰 주제를 가지고 각 프로마다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다.

▶ 동아리별 평가 및 시상

- 평가 방법

- (1) 심사위원 구성: 교사 2명, 학생회 6명, 대의원회 3명 등 11명
 - (2) 등급: A, B, C 3개 등급으로 우수하면 A, 평범하면 B, 부실하면 C로 한다.
 - (3) 점수: A=3점, B=2점, C=1점 으로 한다.
 - (4)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커다란 전지에 학생들이 직접 잘한팀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함으로써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다.
 - (5) 채점 방법: 평가위원과 스티커 점수를 합하여 평균한다.
- 총 점수 산정
- (1) 채점 한 점수로 수상 부서를 결정한다.
 - (2) 동점 처리: 스티커 점수가 높은 반으로 한다.
- 수상 부서 선정 방법 - 전시부, 공연부로 나누어 선정, 시상한다.



2. 각종 이벤트 마당

▶ 동명어고

○ X 퀴즈

- 운동장에서 진행 사회자가 O or X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내오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O X를 가려 선택한 장소로 이동한다. 만약 답이 틀렸을 경우는 탈락으로 처리되며 많은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을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을 진행한다.

전통놀이

-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의 종류를 자세히 알고, 놀이로써 접해 봄으로써 요즘 서양문화놀이에 젖어있는 학생들에게 전통놀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다.

-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등

공든탑

- 10원짜리 동전으로 2분간 책상위에 탑을 쌓는 높이로 순위결정.
- 보너스 : 초청인사도 같이 참여하며 1인당 10층씩 높여준다.
(준비물) 책상 2개, 10원짜리 동전 500~700개.

두더지 게임

- 도우미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주기로 하고 두더지 18명정도를 선발한다. 각 각 두곳에서 하게 되고 뿔망치로 헬멧을 쓴 두더지를 때리는 스트레스 퇴치용 인간 두더지 게임이다. (준비물) 사람 머리를 내놓을수 있는 판, 뿔망치 2개정도

▶ 경북어고

팔씨름 대회, 빨대로 콜라 빨리 마시기, 타자 빨리 치기, 구구단을 틀리자 문자로 말해요 : ① 상식, 연예, 스포츠, 시사 네분야에 걸쳐 간단한 문제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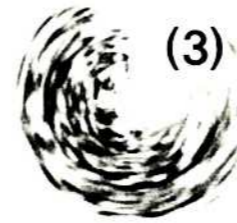
- ② 주소록 번호를 지정해 준다
- ③ 지정해준 주소록 번호로 문제의 답을 문자로 보낸다
- ④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이 온 분에게 푸짐한 상품을 준다

▶ 용문고

현상수배 : 지정된 현상수배자의 몽타주를 학교 이곳 저곳에 붙여놓고, 이 사람을 찾아 오는 사람에게 푸짐한 상품을 준다.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 즉석사진을 찍어준다. (참가비 3000원)

꽃마차 : 꽃마차(꽃으로 치장된 리어카)를 준비해놓고, 참가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꽃마차에 태우고, 운동장 1바퀴를 돌아온다.



(3) 축제 준비 순서

0. 축제 준비위원회 구성 - 학생회 내부 축제준비위 체계로 돌입

1. 기획회의 및 기획안 작성 - 학생회 간부 모두가 적극적으로(회장에게만 맡겨지는 문제는 아님)

- ① 전체 프로그램 기획(공연, 전시, 이벤트, 개폐막 및 대동제)
- ② 홍보 기획(홍보전략 회의, 포스터팜플렛 디자인 짜기)
- ③ 예산 짜기(각 프로그램별 예산, 동아리 예산등, 홍보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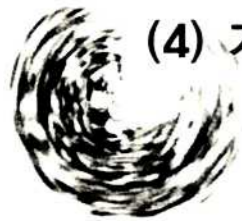
2. 실무를 위한 역할 분담 및 축제 까지의 계획 세우기

3. 축제 도우미 모집 -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무가 많으므로 각 학교 학생회는 대의원 또는 도우미를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한다.

4. 축제 준비과정 돌입 (동아리 회의, 실무해결등) : 실무 해결 과정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됐다 싶어도 부족할

수도 있다. '다 된 실무 다시보자!'

- ✓ 강당공연팀 - 기획안, 엠프, 조명섭외, 가요제 접수, 1차 심사, 강당공연신청받기, 공연팀 순서배치, 순서지 만들기, 리허설, 마이크 테스트 등
- ✓ 교문인사팀 - 교문인사 멘트 정하기, 연습, 교문인사할 사람 모집
- ✓ 본부석팀 - 본부석 꾸리기, 이벤트 준비, 도우미 모집
- ✓ 홍보팀 - 포스터, 팸플릿 제작, 타학교 배포, 학교축제 CF 제작, 방영
- ✓ 예산팀 - 예산확보, 재정분배, 영수증 처리 등



(4) 기획안 작성의 예시

① 기획안 작성 왜 중요한가

보통 축제는 [준비] → [실행] → [평가 및 마무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준비단계]

1. 축제 준비위원회 구성
2. 축제 기획안 작성
3. 역할 분담 및 정기 회의 (전시회 공연 준비 및 점검 등 실질적 행사준비)
4. 축제 홍보 (학내 홍보 및 학외 홍보)
5. 찬조 공연팀 섭외
6. 실무 준비 (엠프, 조명,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7. 최종 점검 및 리허설

[실행단계] 축제 당일

[평가/마무리 단계]

1. 축제 평가 (축준위, 도우미 등 뒷풀이 평가회의)
2. 마무리 (영수증 처리 및 평가서 보고 - 교사, 학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기획안 작성은 축제 준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기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축제의 밑그림을 다 그리게 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기획안 작성은 축제 준비의 시작이라 하겠다.

② 기획안 작성 개요

- 축제명, 주제, 목적 설정
- 축제 개요(일시, 시간, 장소, 축제 일정, 동아리, 학생회 행사 등)
- 월별 추진 일정
 - * 홍보 계획(홍보물 제작부터 학내, 학외 홍보 계획)
 - * 찬조팀 섭외 계획(~~학교 ~~동아리 ~~가수, ~~ 밴드부 등)
 - * 실무계획(엠프, 조명 섭외계획, 리플렛, 포스터 제작 계획 등)
- 동아리 행사 세부 기획안(공연동아리, 전시동아리 등)
- 학생회 행사 세부 기획안(개, 폐막, 대동제, 이벤트, 가요제 등)
- 행사 예산
- 기타 자료 첨부

[공연]



(1) 공연, 이렇게 준비하자

가. 공연의 주제 및 캐치(제목) 설정하기

책의 제목은 작가가 그 책을 쓴 이유나 혹은 내용을 함축하는 한 단어로 결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연에도 그 학교의 공연의 분위기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축제 공연의 제목들은 'OO고 가요제', 'OO중 발표회' 등 너무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것들이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캐치(제목)는 문구를 삽입하기 보다는, 올해의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짜보자.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자고 한다면 "미쳐보자! OO 가요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다면 "대한민국 고딩 만세" 등의 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연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해지고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나. 공연 준비 계획 세우기

축제의 주제와 제목 등이 나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공연 준비를 어떻게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적어서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것을 월별로 어떻게 진행해나갈지를 정해놓아야 막판에 허덕이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안을 참고 하여 우리 학교는 어떤 일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참고 1>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무엇?

- * 교내 출연자 및 사회자 섭외 계획 - 출연자 모집 홍보(포스터, 영상 제작등), 오디션 날짜 잡기
- * 찬조팀 섭외 계획 - OO학교 XX동아리, △△가수, □□ 밴드부 등
- * 실무계획 - 엠프, 조명 섭외계획, 홍보 포스터, 영상 제작 계획등
- * 역할 나누기 - 위의 내용을 누가 진행할 것인가. 책임자 선정하기
- * 예산 짜기 - 무대, 엠프, 조명 및 그 외 기타 실무 관련하여 얼마가 들것인가
- * 축제 당일 까지 어떻게 준비 일정

<참고 2> 공연이 25일인 학교의 9월 준비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회의(공연준비일정 논의)	2 ←출연자 및 사회자 오디션	3
4 홍보 준비-->	5 ←----->	6 찬조공연팀 섭외 기간(완료)	7 ←----->	9 출연자, 사회자 오디션 공고 및 홍보	10 ←----->	11 출연자 및 사회자 오디션 보는날
12	13 출연자 및 사회자 합격자 발표	14 음향, 조명 섭외 시점 완료	15 ←----->	16 공연 순서 정하기 및 콘티 구성	17	18
19	20 사회자 면담 및 멘트 구성	21 당일 공연 진행 교육	22 장소 꾸미기 플랭카드 및 그외 장식	23 출연자, 사회자 점검 및 리허설	24 ←-- 축제 당일-->	25 공연날
26	27	28	29	30		

